

 <p>안 그래픽 인쇄 · 싸인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2930 Old Norcross Rd #B-500 Duluth, GA 30096</p>	<p>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p>	<p>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중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p>	<p>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p>	<p>오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p>
 <p>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p>	 <p>스와니 678-482-9434 (주말 예약가능) 교정/소아 치과</p>	 <p>DUO Tucker 770-939-1280 전문의 김범수 니콜라오 김보근 알폰소</p>	<p>Brighter Smiles 광상범 이수산나 잔스크릭 치과 www.brsmiles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30024</p>	
 <p>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p>	 <p>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p>	<p>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p>	<p>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p>	
 <p>간병인 수시 모집 김경숙 소화테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p>	<p>RIVERBEND 리버밴드 오토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p>		<p>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무추출펀드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p>	<p>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p>
 <p>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정토니 안토니오</p>	<p>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p>			
 <p>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p>	 <p>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p>		<p>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p>	
<p>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부동산 전문인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p>	 <p>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p>			
<p>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p>	 <p>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오민환 파비아노</p>			
<p>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p>	 <p>최윤석 용자 *주택용자 *상업용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p>			
 <p>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p>	 <p>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p>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순교자 주보



이탈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3년 11월 12일

NO.2225

SCAN ME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열 처녀의 비유, 히에로니무스 프랑켄 2세, 1616년>

연중 제32주일

성 가 입당: 1 봉헌: 210/216 성체: 166/151 파견: 65

제1독서 지혜서 6, 12-16 지혜를 찾는 이들은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답 송 
주님, 저의 하느- 님, 제- 영혼 당- 신- 을 목 말라 하나 이 다.

제2독서 테살로니카 4, 13-18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 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마태오 25,1-13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신앙이 온다. 신앙을 맞으러 나가라. (마태오 25,1-13)

이들에게 희망을 <마태오 25, 1-13 >

배영길 베드로 신부

척박한 고산지라도

천국의 희망을 걸고

뿌리를 내리는

앵초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겪는 힘든 시간을 넘어

찬란히 꽃을 피울 수 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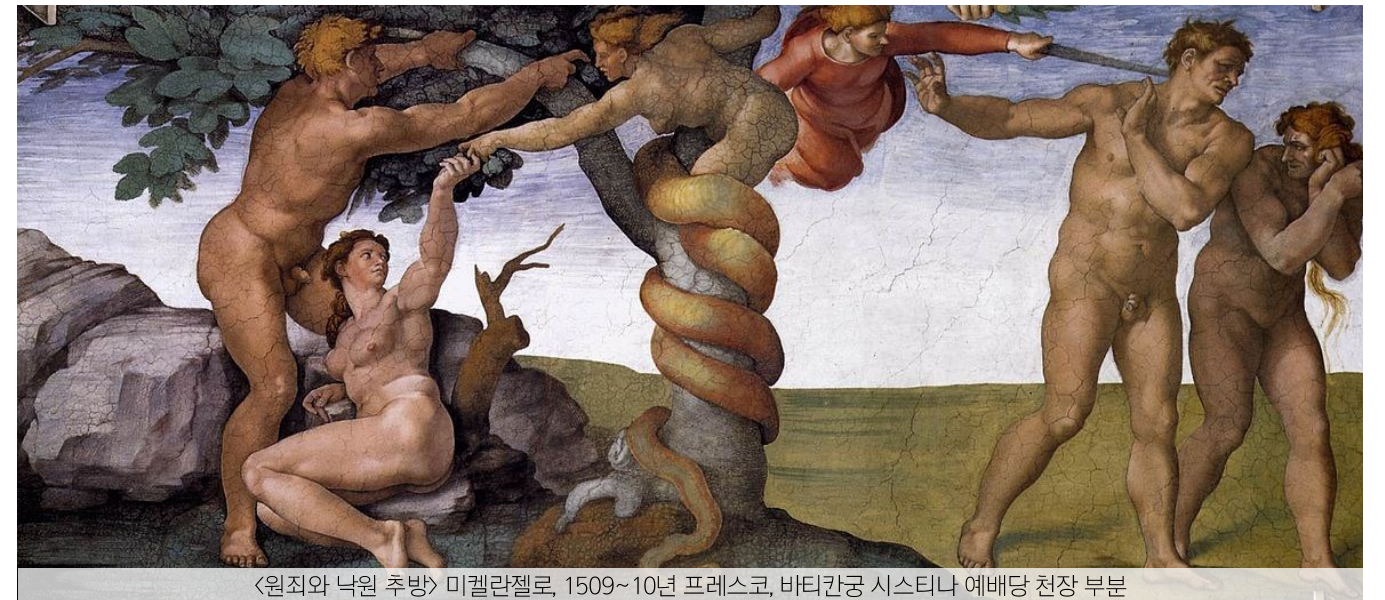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3)

한 달 전에 한국을 다녀 왔다.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 스 사태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들도 만나 회포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갈 때 마다 늘 느끼곤 했었지만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분야 별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인 System을 구축한 느낌이었다. 제가 만났던 지인들은 거의 다들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매우 바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였다. Old boys인데도 다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젊게, 공부하면서,알 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내가 많이 뒤 처진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일종의 반성이 올라왔다. 한 달간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기내에서 창 밖을 바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 왔다. 미국에서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는 또한 맛있는 삶이 오히려 하느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뉴스나 드라마 보는 시간도 적고, 정치 기사에 민감치 않고, 한국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이 없어 분주히 돌아 다니는 일도 없고 그저 일상에 열중하고 주일 미사 참례하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영성 공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사는 삶이 오히려 하느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올라 왔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을 보면 신앙을 기다리는 처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맞아 혼인 잔치에 가야하는데 캄캄한 밤중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신앙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어 혼인이 깨졌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늘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늘 준비하고 살아라”와 동일한 말이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관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권리와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해 지고,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착각하지요. 허지만 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 의식을 강조하십니다.누구나 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지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꽤나 부담스럽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도 이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반대 급부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나라 잔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가짜 행복에 빠지지 않는 용기 있는 Christian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성 찰 |
당신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깨우려고 애 쓰십니까?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인간이란 무엇이고 누구인가?



<원죄와 낙원 추방> 미켈란젤로, 1509~10년 프레스코, 바티칸궁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 부분

저는 세례 받기 전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느님은 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셨고, 왜 뱀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죄지를 벌미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 선악과가 없었고 뱀이 없었다면 첫 인간이 죄짓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인간이 원죄의 굴레에 빠질 일 없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하느님은 왜 그러 하셨을까?’

창세기의 인간 창조 과정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자 하시며 당신의 모습 대로 인간을 지어내셨다고 합니다.(창세 1,26-27) 그래서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은 먼지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 넣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공통점은 영적인 존재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하느님은 영자 체이신 성령이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영 일부가 육체와 합해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창세기의 인간 창조 과정에 주목하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Homo, Imago Dei)’이라고 답합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유사한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한편으로 위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Blaise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규정하는 데,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기에 위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신과 함께 하는 인간의 지복’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구원될 수 있을까요? 처음 창조되어 하느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근심 걱정이 없었고, 아프거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인간은 하느님을 거역합니다.

하느님은 왜 이 세상에 선악과와 뱀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만일 하느님이 뱀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거나 죽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한편으로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가르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에덴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뱀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많은 세계,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결국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은 죄짓기 이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구원=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출처:서울 주보 >



11월 4일 (토) 영어미사 전례팀 교육



11월 5일 (일) 12:15p 11월 가족미사 (매월 첫째 주)



위령미사

11월 4일 (일) Georgia Memorial Park에서 위령미사와 연도가 있었습니다.



11월 성 루가 의료봉사



주일학교 초등부 액티비티 수업 모습-게임 및 음악 수업



망치회 김밥과 컵라면 판매



성모회 판매



학부모 <모.하.기> 주얼리반 첫 수업



대건한국학교 가을 운동회 지난 10월 28일(토) Best Friend Park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나의 산티아고'

왜, 그 길을 걷는가?

길은 시간이 고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지나 가고, 또 지나가야만 생깁니다. 길에는 그곳

야고보 사도의 발자취가 남은 성스러운 길은 어떤 약 속도 하지 않은 채 가진 것부터 모두 버리라고 합니다. 배낭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듯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시간까지 버리라고. 앞서 그 길을 걸었던 브라질 소설가 코엘류도 "늘 우리를 이끌어주는 손이 있음을 믿고 매 순간 우리 시간을 온전히 내맡기라."고 했습니다.

을 지나간 수많은 생명들의 삶과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길은 거기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길로 이어져 가다 보면 다른 길과 만나고, 어디쯤 에서는 작은 길 이 큰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길 위의 날들'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의와 고통과 눈물의 여정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조금씩 믿음과 기쁨과 깨달음으로 변해갈 때 길은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 마른하늘에 벼락이 치듯 하페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는 그것을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까지 우리도 그와 같은 속도로 걷고, 헉헉대고, 쓰러지면서 하루하루를 함께 합니다. 빨강머리의 영국 여자 앤, 마음이 넉넉한 뉴질랜드 중년 여성 실라도 함께 만납니다. 영화가 이따금 담아낸 감탄을 자아낼만한 풍경 역시 눈이 아닌 마음에 담습니다.

길을 걷는 목적이 오로지 이동이라면, 걷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힘인 두 다리보다는 얼마든지 효율적인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편안히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갈증과 허기,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며 험한 산길을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길은 사유와 자유를 이어줍니다. 셋길을 어슬렁거리려도, 가다가 멈춰서도, 가던 길을 되돌아와도, 길을 잃고 헤매도, 거기에는 성찰과 사색과 주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영화와 책이 아무리 느리게 건너라도 그것들을 오롯이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나가는 길, 글로 걷는 길보다는 느리고 힘들지만 직접 그 길을 걸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인생이 다르듯 그 걸음 또한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조차 멀어지면서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후회는 늘 머뭇거림에서 오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나의 산티아고>의 독일 인기 코미디언 하페는 800km의 산티아고 고행에 나섰고, <와일드>의 주인공인 미국 여성 작가 셰릴은 장장 4,285km의 아메리카 산악길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고, 또 걷고 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하페에게 그것은 휴식도, 여행도 아닙니다. 순례자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은 더욱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길을 선택하든 길은 걷는 자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 환희와 절망이 만들고 지킨 멀고 험한 산티아고 길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일)

교중미사(10:30am)...	224명	주일헌금	\$ 4,707.00
아침미사(8:30am)...	98명	교무금	\$ 10,410.00
영어미사(12:15pm)...	134명	감사헌금	\$ 0.00
청년미사(5:30pm)...	50명	청소년 기금	\$ 0.00
미사참례 총	506명	성물방	\$ 86.00

교무금 명단

강규상(11)	김영철(11)	민수중(11)	송정길(11)	이길중(10~12)	조소춘(11)
강성태(10~12)	김영홍(8~10)	박남철(8~11)	신승재(11)	이동춘(11)	채혜연(11,12)
강영조(11)	김영환(11)	박명화(11)	심충섭(11)	이복화(11)	최동순(11)
강익수(11)	김일환(11)	박송자(11)	양경직(11)	이봉조(11)	최순례(11)
김국환(11)	김재경(11)	박연순(10)	오명해(10~12)	이상용(11)	최영갑(11)
김남우(10)	김중환(11)	박영자(11)	오상수(11)	이석균(11)	최인영(11)
김루시아(11)	김태규(11)	박영희(11)	원동훈(11)	이순섭(9,10)	최준태(11)
김면기(11)	김홍섭(11)	박재현(10,11)	유선아(6~11)	이종길(11)	한성희(10,11)
김봉섭(10,11)	김훈(11)	박종홍(11)	유영한(11)	이진승(10)	한혜선(11)
김상순(11)	김희연(11)	박찬규(11)	이경우(10)	장인욱(10,11)	허민환(11,12)
김영길(11)	나창섭(11)	배정희(11)	이광자(11)	전용희(11)	홍영기(11)
김영배(11)	남현석(11)	서인원(11)	이국진(11)	정용선(9~11)	

가을음악회 후원금 최종결산

내 용	금 액
티 켓	\$ 4,420.00
도 네 이 션	\$ 10,200.00
리프레쉬먼트	\$ 1,692.00
합 계	\$ 16,312.00

▶ 가을 음악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태규	박종홍	심충섭	이복화	조보현
강성태	김향순	박찬규	심호용	이봉조	조성환
강영조	김현길	박평하	안금환	이석균	조소춘
고창민	김호수	방영택	안승범	이성철	지승남
곽홍배	김홍섭	배광욱	양경직	이수진	차영수
김 훈	김희연	배용자	양경환	이승구	천병호
김경숙	나창섭	배정희	양국일	이종길	최동순
김남우	남기원	백현숙	양재준	이주미	최문석
김대홍	남상우	서동민	오경민	이창호	최문영
김루시아	남현석	서미영	오규형	이준복	최양숙
김면기	문명재	서상희	오상수	이현두	최영갑
김미자	민병선	서용원	오현정	이현두	최옥란
김미혜	민수중	서재욱	왕복실	이현욱	최지남
김루시아	민주미	서혁규	원동훈	이홍규	한성인
김봉섭	박근우	석대진	원용방	이홍규	한춘하
김상순	박남준	석대진	유경애	이홍철	한혜선
김성강	박남철	설재규	유선아	장민재	허민환
김세경	박두환	성정창	유성열	장혜선	허성일
김영길	박두환	소종선	유영한	전 훈	홍동욱
김영철	박미혜	손영덕	유종현	전근섭	홍서훈
김영홍	박송자	손경자	윤석진	전용희	홍영기
김원봉	박영자	송철우	윤석진	정승욱	
김일환	박재석	송무남	이건수	정용선	
김주희	박재영	송용덕	이경우	정지윤	
김진용	박정미	송창를	이동춘	정창래	

교무금 새로 약정 하신 분

강비호 박경미 우장희 임용택 한규빈
 김덕자 박병호 윤지영 임재형 한찬욱
 김용준 서영범 이동선 장윤아 홍남식
 김용학 스티브 이은경 차유경 홍상진
 도한익 심재숙 이창욱 최규복
 문쌍국 오재찬 이치선 최혜민

▶ 교무금 약정하신 분중에 신자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자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방역지침 변경 안내

1. 마스크 착용은 자율
2. 미사중 응송 가능
3. 고해성사는 사제 사무실에서
4. 성수는 운용하지 않으며, 비치된 Sanitizer는 그대로 운용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코비드 양성반응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CDC가 분류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경우(노약자)
5. 미사 관면이 가능한 경우(애들랜타 교구청 지침)

2023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3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달성률	105.7%
약정액	\$ 35,790.00
누계 납부액.....	\$ 46,754.00
금주 납부액.....	\$ 1,080.00

2023 AA 기금 납부자

강규상	박명화	원동훈	이홍규
김영철	박재현	이길중	전용희
나영숙	배정희	이상호	최준태
박근우	송정길	이석균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청소년 기금
 Angela Fund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시,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 2023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례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1/11 (토) 오후 5:30	김범수	김태훈 임정현	장재은 김소현
11/12 (일) 오전 8:30	이경환	최인영 남승은	김아론 박시윤
11/12 (일) 오전 10:30	박미혜	고근배 고수영	성리디아 양다현 오준서
11/12 (일) 오후 12:15	Derek Lee	김매튜 배윤슬	김서중 소현서
11/18 (토) 오후 5:30	이상은	윤 결 광예원	박재호 김서윤
11/19 (일) 오전 8:30	서정원	김대용 김월수	남소호 양태인
11/19 (일) 오전 10:30	이숙자	이국진 이정란	최예은 박시은 홍지아
11/19 (일) 오후 12:15	Sara Park	성리디아 김소현	전지우 오준서

본당 캘린더

11월 12일	• 차타누가 공소 미사
11월 19일	• 성탄 맞이 대청소
11월 23일	• 추수 감사절 미사
11월 26일	• 뉴난 공소 미사

추수 감사절 미사 안내

- 일시: 11월 23일(목) 10시30분
- 미사후 성모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오후 1시에 성당문을 닫습니다.
- ▶ 11월 24일 (금) 낮 12시 미사가 없으며 성당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대림절 성경읽기 및 묵주기도 봉헌

- 목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 하기 위해 신자 개인 지향 및 특별지향 묵주기도와 4대 복음서 읽기를 12월 24일까지 봉헌
- 4대 복음서 읽기 및 기도 제출 마감 12월 23일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에 개인별, 혹은 단체별로 넣어 주시면 성탄 전0까지의 규예물로 봉헌함.

학부모 영성 강의

- 주제: 사랑의 부르심 (마태 25,1-13)
- 일시: 11월 12일 (일) 10:30~12:00
- 장소: 119호실

2024년 매일 미사책 신청

- 일시: 일요일 미사후 | 장소: 친교실
- 1년 구독료 : 90불
- 문의: 사무실 770-455-1380

주임 신부님 일정

- 10월 30일 - 11월 11일 성지순례
- 11월 14일 - 12월 12일 비자연장 한국 방문
- ▶ 주임 신부님 부재 동안 류해욱 요셉 신부님이 본당을 도와 주시겠습니다.

2차 헌금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일시: 11월 18일(토)/ 19일(일)

망치회 김밥 컵라면 판매

- 일시: 11월 12일(일) | 장소: 친교실
- 문의: 원 동훈 770 910-5656

성모회 잡곡 판매

- 일시: 교중미사후(일) | 장소: 친교실
- 참거름, 들거름, 도토리국수, 마역, 다시마, 나물 등등...

등대회 11월 정기 월레모임

- 일시: 11월 19일(일) | 장소: 112호
- 문의: 이경우 빈첸시오 678-644-7341

행사 및 모임 안내

성서 봉사자 회의

일시: 11월12일(일), 12:00pm | 장소: 113호
 문의: 이숙자 크리스티나 678-665-3882

꾸리아 월레 회의

일시: 11월12일(일), 12:30pm | 장소: 대건 도서관
 문의: 왕희숙 미카엘라 352-359-4283

故 차로사님 1주년 추모 연도 공지

- 일시: 11월 14일(화)12시 미사후 | 장소: 대성전
- 연락처: 차종진 (요셉)678-928-1053

12월달 월레 사목회의

- 일시: 12월 6일(수) 8:10pm | • 장소:소성당
-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 미사후 월레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마르코 복음
 • 개장: 9월28일 (목)
 • 시간표

수요일 오전	11:30am-1:00pm	소성당
목요일 오전	10:30am-12:00pm	소성당
목요일 오후	6:00pm-7:00pm	대성전

• 교재 구입: 9월10일 친교실
 • 가격: 마르코 복음 \$ 15 | 요한 복음 \$30
 • 문의: 임혜수 404-246-8142

2023-2024년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 ~ 12학년
 • 수업기간: 8월20일~12월17일(16주간)
 • 등록비(일년): 1인 \$100/ 둘째 \$90/ 세째 \$80
 • 문의: 이진화 로마나 770-572-4000
 kmccga.youngadult@gmail.com

2023-2024학년도 대건 한국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만4세) ~ 12학년
 • 수업기간: 8월12일~12월9일(16주간)
 •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 특별수업: 미술, 태권도, 동요, 무용, 서예, 난타
 •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강자근(수산나)	유옥희(모니카)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금숙(세실리아)
류영래(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라)
박정자(테레사)	채종현(아오스딩)
박출리(히야친타)	최대일(프레드릭)
박평하(요한)	최순례(아나타시아)
안정주(소피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3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2023-24년도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가톨릭 신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접수: 사무실 | 접수마감: 2023년 8월31일
- 수업기간: 2023년 9월10일 -2024년 3월31일(부활절)까지
- 수업시간: 매주 주일 9:00am-10:15am
- 수업외 일정: 본당 입교식,선발식,수도원 방문, 일일피정, 세례 견진 성사, 환영식
- 문의: 나상숙 스킨라스티카 678-933-7313

2023-24년도 청년 예비신자 & 견진 교리반 모집

가톨릭 신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접수: 사무실 & 청년회장단
- 수업기간: 2023/10/21- 2024/3/30(부활절)까지 (견진 수업: 1월 27일부터 최소6회 이상 수업 참여자)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3:45pm- 5:00pm
- 수업 외 일정: 본당입교식,선발식,세례 견진성사,환영식
- 대상: 18세-39세 청년 (39세 이하 자녀없는 부부 포함)

2023년 신자 재교육 2

그리스도의 사랑

- 주제: 자캐오 (루카 19, 1-10)
- 일시: 11월12일 (일) 12:20pm - 1:00pm
- 장소: 소성당
- 문의: 이혁련 모니카 404-518-7373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Find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1학기: 2023년 8월 27일 ~12월 17일(8주)

기타(성가대실) 꽃꽂이 (115호) 주얼리 (115호)

8/27-12/17(8주) 8/27-10/22(4주) 11/5-12/17(4주)
 10:30-11:30am 10:30-12:00pm 10:30-12:00pm

2학기: 2024년1월 28일 ~ 5월 12일(8주) 예정
 주관: KMCC 주일학교
 문의: 임은영 클로틸다 ClotildaLim@gmail.com